

밀레, 서울성모병원에 의료용 자동세척기 공급

기사입력 2008-12-08 09:41 윤종성 jsyoon@asiae.co.kr



밀레의 대형 의료기기 살균세척기

밀레(한국대표 안규문)는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 등을 세척하는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(모델명: PG8528) 8대를 비롯 총 12대의 의료기기를 내년 5월에 개원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.

밀레코리아가 국내 병원에 의료기기 세척용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납품하게 된 밀레 프로페셔널 대형살균세척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C, 오스트리아의 란데스크리쿰 비인 노이슈타트 병원, 프랑스 리옹의 프리베 장 메르모 병원 등 다수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.

강력한 듀얼 순환펌프와 첨단 산소세척프로그램으로, 병원에서 사용되는 매스나 수술 가위 등 일반 수술도구를 담은 세척 바스켓 15개와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수술도구 7세트, 복강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수술도구 3세트, 플라스크와 같은 실험실용 유리도구(110ml~250ml) 115개를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다.

특히 세척기에 탑재된 옥시바리오(OXIVARIO), 오도바리오(ORTHOVARIO) 산소세척 프로그램은 수술 중 각종 의료도구를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살균·세척해주며, 수술 후 의료기기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응고된 혈액까지 완벽히 제거해준다.

밀레코리아 관계자는 "이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형살균세척기 납품은 최고 품질의 밀레 의료기기세척기를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앞으로 국내 대형 병원과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윤종성 기자 jsyoon@asiae.co.kr

<©아시아 대표 석간 '아시아경제' (www.asiae.co.kr) 무단전재 배포금지>